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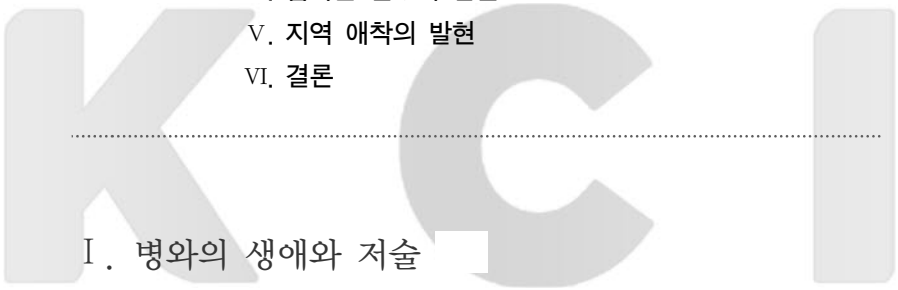
병와 이형상의 인천 시편 고찰

- 『소성속록』을 중심으로

이영태*

이
영
태

- I. 병와의 생애와 저술
- II. 일상에서의 도의 추구와 열린 사유
- III. 궁핍한 일상의 목격
- IV. 잡다한 일상의 발견
- V. 지역 애착의 발현
- VI. 결론



I. 병와의 생애와 저술

瓶窩 李衡祥(1653~1733)은 인천 竹藪里 疏巖村에서 태어났다. 자는 仲玉, 호는 瓶窩·順翁이며, 본관은 完山으로 효령대군 10세손이다. 1677년(숙종 3년) 사마시에 합격, 1680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성주목사, 금산군수, 청주목사, 동래부사, 양주목사 등 외직을 담당했다. 1694년(숙종 20년)에는 갑술환국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꺼리게 되자 강화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강도지』를 엮었다. 제주목사로 재임할 때(1702년), 淫祠를 철저히 단속하여 신당 129개, 사찰 2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탐라록』을 엮기도 하고 화공에게 명하여 『탐라순력도』를 그리게 했다. 제주

* 인천학연구원 연구위원

목사를 사임하고 돌아올 때는 거문고 하나뿐이었을 정도로 청렴했기에 백성들이 비석을 4개나 세웠다고 한다. 영조 때 호조참의에 임명됐으나 나아가지 않고 30년 동안 영천에서 지냈다. 1728년(영조 4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가선대부에 올랐으나 敵黨과 내통한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후 무고함이 밝혀졌지만 국문을 받은 후유증과 宣懿大妃 國喪이 겹쳐 영천으로 내려가지 못했다. 이때부터 그가 81세 때 과천의 객사에서 병을 얻어 줄하게 되는 1733년(영조 9)까지 약 5년간 인천에 거주했다.

생애를 통해 보건대 그는 실학이 고조되던 시기에 살았으며 행정에 뛰어난 청백리였다. 당시에도 여전히 만연했던 미신을 과감하게 타파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유학적인 실천가였다. 특히 그의 후반 30년은 벼슬을 등지고 학문에 몰두한 시기인데 이는 그의 저술을 통해 익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142종 326책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말년에 집필한 게 『소성록』과 『소성속록』이다. 『소성록』은 그가 77~78세 때인 1729~1731의 작품을 1책으로, 『소성속록』은 그의 나이 79~81세 때인 1731~1733의 작품을 1책으로 엮은 것이다. 『소성속록』에는 266수의 시와 64편의 산문이 실려 있다. 시는 오언절구 41수, 칠언절구 55수, 오언율시 20수, 칠언율시 143수, 오언고시 4수, 箴 1수, 악부 2수 등이다. 그리고 산문은 祭文 6편, 편지글 8편, 家禮의 規式 6편, 經典 7편, 序 8편, 記說論이 각 2편, 기타 2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情景를 그려낸 작품이 대부분이다.¹⁾

『소성속록』에는 인천 竹藪里 疏巖村 주변의 경관 및 인물에 대한 서술(「소성의 네 노인을 노래하다」)²⁾와 영종도를 처음 방문한 시기(「이곳은

1) 병와의 생애와 저술과 관련된 부분은 지교헌, 「병와 이형상의 윤리사상」; 김용걸, 「병와 이형상의 철학사상」; 남명진, 「병와 이형상의 경학사상」, 『한국사상가의 새로운 발견-병와 이형상·호산 박문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박민철, 「병와 이형상의 저술과 가장 문헌의 서지적 분석」, 경북대석사논문, 2011; 임성민, 「병와 이형상의 악부시 연구」, 성균관대석사논문, 2002; 최재남, 「병와 이형상의 삶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9를 참조했다.

2) 『소성속록』 「邵城四皓咏并序」. 이하 책명은 생략하고 제목만 적시한다.

본래 급제한 후에 부임한 곳으로, 5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역풍이 갑자기 순풍으로 변하여 편안히 건넜으니, 가히 괴이한 일이다」³⁾와 재차 방문한 과정(「신해년 동짓달 12일에 섬에 들어가다」⁴⁾ 그리고 영종도 주민의 풍속(「섬의 풍속」⁵⁾과 인천 도서지역의 구황작물(「용류순」⁶⁾) 등이 기술되어 있어 인천연구 자료로 가치가 있다. 게다가 그 동안 병와 이형상 관련 연구사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소성속록』 안에 포함된 『부해록』에는 영종도 주민들의 생활상이 漢詩 형태로 나타나는데, 향후 병와 및 인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병와는 일상이 궁핍하든 잡다하든 그것을 道와 연계시키고 있었다. 궁핍한 일상이되 道를 멀리하지 않아 亞聖으로 불린 顏子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그래서 『소성속록』의 한시를 ‘일상’과 ‘궁핍’을 항수로 삼아, ‘일상에서의 도의 추구와 열린 사유’ ‘궁핍한 일상의 목격’ ‘잡다한 일상의 발견’ ‘지역 애착의 발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마지막의 경우 여타의 팔경시가 태평·풍족·고요함을 드러내는 데 비해 병와의 영종도 팔경시에는 遠景에서는 명승이지만 近景에서는 명승 이면에 숨어 있는 궁핍을 확인할 수 있다.

II. 일상에서의 도의 추구와 열린 사유

병와에게 일상이란 단순히 일상에 머문 게 아니라, 道를 추구하는 방편이었다.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도와 연계하여 그것의 의미를 재구하려는 혼

3) 「此本決科之地還到於五十二年之後逆風猝順利涉可怪」. 이형상 관련 생애에서 영종도로 부임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향후 그의 연보를 온전히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 『소성속록』 안에 있는 『부해록』이 될 것이다.

4) 「辛亥至月十二日入島」. 신해년은 1731년으로 병와의 나이 79세이다.

5) 「島俗」.

6) 「龍流蓴」.

적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도학의 계통을 규정한 데에서 출발한다.⁷⁾

공자는 으뜸의 기운이다. 때 맞춰 내리는 비처럼 교화는 세상을 항구 불변하게 적실 것이다. 안자는 도학의 씨앗이고, 맹자는 도학의 결실이고, 증자는 계보를 이었으며, 자서는 도학을 저술하였으니 또한 지난 것을 밝혀 미래를 열어 보인 것이다. 주례는 마음의 형상을 드러냈고, 정명도는 성인의 성실함을 얻었다. 회암(주자)은 여러 유학을 집대성했다. 옛날부터 (도학의) 바른 줄기가 이와 같다. 그러나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측량한 것 같이 망령되고 참람함이 망극하거나.⁸⁾

道統에서 공자가 으뜸의 기운(夫子元氣也)이고 그것의 결실이 맹자(孟秋)라 한다. 『소성속록』에 공자에 대한 언급이 40회, 맹자에 대한 언급이 20회 정도 등장하며 四書を 소개하면서 『논어』는 11,705자, 『대학』은 經이 205자이고 傳이 1,546자, 『중용』은 3,551자, 『맹자』는 31,685자라며 해당 경전의 글자의 수까지 적시한 것으로 보건대 병와에게 도학 추구는 일상이었다.⁹⁾

주자가 인간의 가치체계를 탐색함으로써 인간의 존재이유를 존재가치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병와는 인간의 존재이유를 인간이 가진 직무를 기점으로 탐색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은 上位者, 先行者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恣意的으로 해석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병와의 철학은 인간이 가지는 임무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간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다.¹⁰⁾

7) 『소성속록』의 한시와 번역은 이연세·김원욱, 『역주소성속록』,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2007년에 의거한다.

8) 「道統」. 이하 인용문에도 원문 생략하고 제목만 적시한다.

9) 「四書」, 論語之一萬一千七百五字 大學之經二百五字 傳一千五百四十六字 中庸之三千五百五十一字 孟子之三萬四千六百八十五字.

병와의 도학 추구가 기존과 변별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임무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간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인간이 가지는 임무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옳은 것[是]에 대한 규정과 실천이 중요하다.

천하에는 다만 한 개의 ‘是’자만 있을 뿐이다. 일마다 물마다 각각 지극한 이치가 있다. 어찌 일찍이 승도들이 한 가지 실마리(話頭)만을 잡고 도야하는 것만을 보겠는가? (베틀에서) 하나의 잉앗실을 바르게 하면 모든 그물의 눈이 풀어지는 것을. 나는 이에 ‘是’자와 ‘順’자가 體(본체)와 用(쓰임)이 된다는 것을 더욱 믿을 수 있겠다.¹¹⁾

제목이 「격물치지는 반드시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글이다. 일반적으로 격물치지는 주자학의 학문과 수양의 중요한 방법론에 해당하기에 특징인들의 수양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 ‘격물치지’에 대해 주자는 格을 이른다[至]는 뜻으로 해석하여 모든 사물의 理致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淵에 이른다[致知는 입장이고 양명학적 입장에서는 사람의 참다운 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物欲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격물치지에 대해 전자는 지식 위주인 것에 반해 후자는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고 있다.

도덕적 실천은 일상에서 도를 추구하거나 설명하기 마련인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베틀의 잉앗실에 기대 격물치지를 운운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¹²⁾ 일상적으로 부녀자들이 옷감을 짤 때, 베틀을 사용하는데 잉앗실이 바르지 않으면 옷감이 온전히 생산될 수 없다. 씨실과 날실이 조화롭게 교차되어야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是’자와 ‘順’자가 體(본체)와

10) 김용걸, 앞의 글, 44쪽.

11) 「格致不必在深遠」.

12) 잉앗실은 베틀의 날실을 한 칸씩 걸러서 끌어 올리도록 맨 굵은 실로 ‘綜絲’라 한다.

用(쓰임)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옳은 것은 大本”이기에 “是로 體를 삼고 順從으로 用을 삼으면, 知와 行이 서로 따르고 内外가 兼備하니, 우리들의 千萬事는 마땅히 順과 是를 따라서 해가야 한다”¹³⁾는 병와의 주장에서 옳은 일에 전념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에서 출발하기에 “이러한 실천력은 그의 철학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으로서, 이를 통해 그의 철학이 매우 명쾌한 행동이론을 제시”¹⁴⁾한다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병와 사유의 실천적 부분을 지적한 논의는 일상의 사소한 소재를 道로 견인하는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動足專依屐履行, 걸음을 내딛을 땐 오로지 신발에 의지하여 건너니,
一身平否分毫爭. 일신의 반듯함과 기울어짐 하찮은 데서 판가름 나네.
蹈仁秉義心事切, 인을 신고 의를 잡음에도 마음 씀이 가장 긴절하니,
咫尺雲泥豈苟營. 얼마 안 되는 지위의 고하를 어찌 구차스레 도모하랴.¹⁵⁾

‘일신의 반듯함과 기울어짐(一身平否)’의 원인을 태생적인 사람의 골격이나 걷는 습관에서 찾지 않고 신발에서 찾고 있다. 신발이 하찮은 역할을 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반듯함과 기울어짐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원인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格致不必在深遠」에서 벼들의 잉앗실을 운운한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일상의 사소한 소재에서도 도를 운운하고 있는 만큼, 불가나 노자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도를 온전히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제목이 「공자는 노자·불가·양자·목자를 물리치지 않았다」¹⁶⁾는 글을 포함하여 일상에 발견할 수 있는

13) 『병와전서』 「병와선생이공행장」, 是者大本也……以是爲體 以順爲用 知行相須 内外兼備 吾人之千千万萬事 當從順是做去.
14) 김용걸, 앞의 글, 45쪽.
15) 「仁字跋」.

잡다한 소재에 해당하는 개미, 귀뚜라미, 파리 등의 특징이 도학으로 견인되곤 한다.¹⁷⁾

III. 궁핍한 일상의 목격

『소성속록』에 등장하는 영종도 주민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궁핍이라 할 수 있다. 자급할 만큼의 기름진 농토가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병와가 영종도에 거주할 무렵에 대기근이 성행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鄉居乏食待田毛,	마을 사람들 먹을 것이 떨어져 밭의 소출이나 고대하고 있는데,
里尹催租氣甚豪.	마을의 벼슬아치 세금을 독촉하는 기세가 매우 등등하구나.
窓外聚蚊揮扇逐,	창밖에서 모여든 모기 부채 휘둘러 쫓아내고,
寢中飢蝨隔衾搔.	잠자리의 굶주린 이는 이불로 막아도 소란스럽네.
蠅營暗嘸知探味,	파리는 몰래 빨며 맛을 찾을 줄 알고,
客寓生涯如是苦,	객지의 생활이 이처럼 고달픈데,
蚤躍潛投覺嘆膏.	빈대는 기름이 있는 곳으로 몰래 튀어간다.
獨吟詩句不嫌高.	홀로 시구를 읊조리며 불평하지 않으리라. ¹⁸⁾

제목에 나타난 대로 「궁벽한 섬에서의 다섯 가지의 괴로움」이다. 화자는 괴로움(五苦)을 乏食, 聚蚊, 飢蝨, 蠅營, 蚤躍으로 지적하면서 ‘홀로 시구 읊으며’ 불평하지 않다고 하지만 ‘五苦’는 객지 생활하는 자에게 고달픈 일(客寓生涯如是苦)이기에만 했다.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졌으니 밭의 소

16) 「夫子不關老佛楊墨」.

17) 「鯨斃近浦」, 「蟻垤」, 「蟋蟀」, 「蠅不畏鞭」 등이 그것이다.

18) 「窮島五苦」.

출이 풍족하지 않았고, 게다가 벼슬아치들의 세금 독촉하는 기세가 등등했으니 마을 사람들이 궁핍을 벗어날 방법이 딱히 서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부실한 몸으로 달려드는 모기, 이, 파리, 빈대 등을 막아내는 일 또한 고충이었을 것이다.

먹을 거 떨어진 상황(乏食)과 관련된 한시는 『소성속록』에서 산견되는데, 아래의 시들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今歲凶荒八路同,	올해도 흉년이니 팔도가 똑같아,
九重春色倍夏忡.	하늘은 봄빛이건만 여름날이 더욱 근심이네.
初仍地啞耕收絕,	처음 地啞日에 밭 갈기와 추수 끊기고,
更值天糞埜室空.	다시 天糞日에 개밧둑 같은 집들 비어 있네.
藁穰滿街山似窄,	마른 시체 거리에 가득해 산길 좁아졌고,
筐窺藏藪道難通.	초목이 우거진 길 다니기도 어려워라.
顏瓢抵處皆無巷,	顏回의 단표누항 이 거리엔 없으니,
孰枕蔬肱可樂中.	어느 누가 나물 먹고 팔베개 하며 즐거워하리. ¹⁹⁾

제목이 「유민과 거지들이 거리에 가득하다」이다.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지옥을 방불케 하는 상황까지 연상할 수 있다. 땅과 하늘이 귀먹은 날이라는 地啞日과 天糞日에 밭 갈기와 추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밧둑(埜室)처럼 허름한 곳에 거주해야 할 사람들이 마른 시체로 변해 산길에 쌓여 있고 통행이 끊긴 산길은 수풀이 무성해서 좁아져 있었다. ‘나물 먹고 팔베개 하’며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성현의 가르침이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²⁰⁾

이러한 참상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19) 「流丐滿巷」.

20) 『論語』述而,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山野稀禽突未烟, 산과 들에 짐승 드물고 굴뚝에 연기 오르지 않고,
 閭村如沸亦堪憐, 온 마을이 물 끓듯 하니 또한 가엾어라.
 孫曾際此糠無厭, 이즈음 손자와 증손자는 술지게미 마다 않고,
 獨有顏瓢不改前. 안빈낙도 몸애 배어 홀로 고치지 않으리라.²¹⁾

제목이 「닭, 개, 새, 참새 대부분 굶어 죽었고, 산 것은 또한 새끼 낳지도 못한다」인 것처럼 흉년이 동물들에게 미친 경우이다. 다만 동물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의 피해가 심각했기에 ‘산 것은 또한 새끼 낳지도 못한다(存亦不孳)’며 시를 지었던 것이다. 병와의 손자나 증손자도 술지게미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린 손자들은 죽이 싫어 간간이 배고픔을 호소한다.(稚孫厭粥間呼飢)’²²⁾는 데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배고픔에 추위가 겹쳐지면 그 고통은 더욱 크기 마련이다.

.....

豆粥支頤解疫瘡. 콩죽으로 삼을 이어가며 상처를 풀려하네.
 頑飢未展寒蚯蚓, 주린 육신 퍼지도 못하는데 추위는 지렁이처럼 찾아오고,
 爍響空空瘠鳴腸. 따뜻한 소식 들려오지 않고 징경이 뱃속은 여위어가네.²³⁾

제목이 「임자년 동지」이다. 콩죽으로 연명하며 부스럼을 견뎌내는 일도 버거운데, 추위는 지렁이처럼 스물거리며 찾아온다고 한다. 온전히 섭생을 해야 추위에 맞설 수 있지만 창자가 비어 있으니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유사한 상황은 ‘급한 바람 타고 내리는 비에 극심한 추위/구휼한다 한들 굶주린 백성 태반이 죽었(急風乘雨劇寒涼/賑募飢民太半殤)’²⁴⁾다며 「

21) 「鷄犬鳥雀多餓死存亦不孳」.

22) 「卽事」.

23) 「壬子冬至」.

풍우가 몰아치고 갑자기 추워지자 가난한 백성이 많이 죽었다」는 한시에 서도 반복되고 있다.

無田無汲亦無樵, 발도 없고 물 갖는 일도 없고 땀나무도 없나니,
 太學生爲灌圃焦. 태학생은 물 대기 위해 밭독을 태우네.
 所忤冲襟依舊悅, 괴이한 마음일랑 옛 도에 의지해 기쁘나니,
 掛箕今作飲顏瓢. 기산에서 키를 걸고 안자(顏子)의 표주박 물을 마시네.²⁵⁾

궁핍의 상황이지만 기산에 키를 걸고 안자의 표주박 물을 마시는 옛날의 道를 기쁘게 생각한다. ‘기산에서 키를 걸’은 일은 許由가 기산에 숨어 살며 손을 움켜 물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이 바가지 한 짝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는 걸어두었던 바가지가 바람에 딸그락 소리를 내자 그것을 버리고 다시 손으로 물을 마셨다는 고사이다.²⁶⁾ 顏子の 표주박 물은 簞瓢陋巷과 관련된 고사이다.²⁷⁾ 특히 『소성속록』에 안자의 안빈낙도는 여타의 경우보다 많이 등장한다. 이는 병와에게 안자는 「도학의 계통(道統)」에서 도학의 씨앗(顏春)으로 궁핍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求道者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²⁸⁾

병와가 영종도에서 목격한 궁핍은 앞에 예거한 것 이외에도 ‘궁벽한 마을을 보리이삭은 더디 익고/바쁜 손길로 베어내어 찢어보지만 죽도 끓일 수 없구나(窮閭麥穗懶騰黃/忙手戈春不厭糠)²⁹⁾와 ‘올해는 굶주린 백성들이 모

24) 「風雨猝寒賑民多死」.

25) 「掛箕飲顏」.

26) 허유는 요 임금이 친하를 讓與하려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 끝내 은거하였다.

27) 『論語』 雍也, 子曰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

28) 궁핍한 상태이지만 道를 멀리하지 않은 안자는 병와에게 각별한 자였다. 병와는 자신의 칩거에 대해 읊으면서 제목을 「식 달 동안 인에 어긋나지 않는다(三月不違仁)」라 했는데 이것은 『논어』의 구절(雍也, 子曰 回也 其心 三月不違仁.)이다.

29) 「飢村摘麥」.

두 캐어갔으니/궁벽한 섬사람들 생계의 어려움을 구제하네(今歲飢民偷採盡/却知窮島濟生艱)³⁰⁾ 그리고 ‘섬사람들은 모두 먹고 사는 문제로 급한데/입산을 금하니 몰래 나무를 베어내니 청렴함이 다칠까 걱정이네(最是島民生事急/犯禁偷斫恐傷廉)³¹⁾와 ‘온 집안이 아이 업고 유리걸식하니/담장 너머 도적질이 짐승 벌레 같구나(渾室流離童穉挈/閱牆偷竊獸虫均)³²⁾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핍과 관련된 시들을 검토해 보았다. ‘먹을 거 떨어(乏食)’지니 ‘산과 들에 짐승 드물고 굴뚝에 연기 오르지 않(山野稀禽突未烟)’고 ‘마른 시체 거리에 가득(藁殍滿街)’하고 ‘추위는 지렁이처럼(寒蚯結)’ 찾아오는 상황이었지만, 병와는 궁핍의 상황에서도 ‘홀로 시구를 읊조리며 불평하지 않(獨吟詩句不嫌高)’으며 ‘안빈낙도 몸에 배어 홀로 고치지 않(獨有顏瓢不改前)’겠다고 한다. 심지어 ‘어린 손자들은 죽이 싫어 간간이 배고픔을 호소하(稚孫厭粥間呼飢)’는 상황에서 ‘어두운 방안 근심은 끝이 없는데 나만 홀로 즐겁(渾室憂違我獨怡)³³⁾기만 하다. 병와에게 영종도에서의 궁핍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불편함이 아니라 도학을 견인하는 계기였다. 『소성속록』에 궁핍하지만 求道者였던 안자가 등장하는 「掛筭飲顏」, 「自勗」, 「流丐滿巷」, 「鷄犬鳥雀多餓死存亦不孳」, 「自歎」 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³⁴⁾

30) 「龍流尊」.

31) 「鹽竈偷薪」.

32) 「里中有至親相偷」.

33) 「卽事」.

34) 병와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安分’의 태도는 「安分」이라는 제목의 한시에도 나타난다. 『병와전서』 間中雜吟, 「安分」, ‘오리와 학은 길고 짧음이 없고/봄 매미는 뭇과 가까움이 있네/만족함과 만족하지 못함을 논하지 마라/나 스스로 나의 분수 편안히 여기리(鳧鶴無長短/春帖有遠近/毋論足不足/我自安吾分)’

IV. 잡다한 일상의 발견

巨髯乘潮斃海濱, 큰 수염의 고래가 조류를 타고 바닷가에 이르러 죽었나니,
 只緣謀食不謀身. 먹을 것만 탐하고 자신은 돌보지 않은 까닭이네.
 奔忙世道皆如此, 분주히 바쁜 세상의 도리도 모두 이와 같으니,
 却把貪淫更戒人. 탐하고 음란한 우리 인간들에게 경계를 드리우네.³⁵⁾

바닷가에서 발견된 고래의 죽음을 인간에게 경계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영종도에서 고래를 발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 낯선 광경이나 감회를 기술하지 않고 고래가 죽은 원인을 ‘먹을 것만 탐하고 자신은 돌보지 않은 까닭’이라 한다. 아마 고래가 자신을 돌보고 이를 바탕으로 먹이를 탐했다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이는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이른바 安分이야말로 동물이건 인간이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하찮은 개미라도 그들의 생태적 특성이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君臣大義爾先知, 임금과 신하의 대의를 네가 먼저 알았으니,
 穴地潛藏亦不私. 땅속에 구멍파고 잠복하니 또한 사사로움이 없구나.
 忠蓋已看趨役際, 너의 충성은 부역에 달려 나갈 즈음에 이미 보았고,
 血誠尤識聚糧時. 피 같은 성실함은 양식을 모을 때 더욱 알았네.
 營生有垤丹心合, 날 때부터 개미집을 지으니 일편단심과 합치되고,
 抵死无原素性推. 죽어서도 들관으로 나가지 않으니 본성을 미룬 것이네.
 亂賊如今連歲發, 난신적자(亂臣賊子)는 지금처럼 해를 이어 봉기하니,
 可憐人理獨何爲. 가련하다 사람 사는 이치를 홀로 어찌 하리오.³⁶⁾

개미가 미물인 듯하지만 그를 통해 군신의 대의를 읽어내고 있다. 개미

35) 『鯨斃近浦』.

36) 『蟻垤』.

집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개미의 성실한 부역에서 충성을 읽어내고 개미집에서 일편단심을 읽어내고 있다. 몸을 낮춰 구멍을 파고 거주하니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않는데, 인간에 해당하는 ‘난적(亂賊)’들은 해마다 충성이나 단심과 무관하게 봉기를 하고 있으니 개미만도 못한 가련한 존재인 것이다.

蠅習皆營不顧身, 파리의 습성이란 먹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塵傷猶復却侵人. 더럽고 상처 나도 오히려 다시 사람에게 침입하네.
口腹由來如是急, 입과 배로 말미암아 이다지도 급한데,
可憐財慾亦堪擧. 가련하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또한 얼굴 찡그릴 뿐이로
다.³⁷⁾

‘먹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파리의 모습이 가련할 뿐이다. 제 몸이 처해진 상황을 돌아보지 못하고 욕심을 앞세우는 모습은 단순히 파리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인간들에게 겹쳐 나타난다. 파리의 습성에 기대 사람의 욕심을 견인하는 것은 단지 병와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양의 오랜 전통이었다. “앵앵거리던 쉬파리/울타리에 앉았네/점잖은 넘께서/참언 믿지 마소서”³⁸⁾와 『고문진보』 韓愈의 「送窮文」과 歐陽修의 「憎蒼蠅賦」를 통해 파리가 욕심장이, 아침꾼, 모사꾼, 소인배와 결부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憎蒼蠅賦」에서 “그릇과 접시에 엉겨 붙은 놈, 술상에 운동 진을 치는 놈, 맛 좋은 진국 술에 취해 그대로 술 속에 몸을 던져 익사하는 놈, 국맛에 닳을 잃어 필필 끓는 국 속에 빠져 혼백을 날리는 놈(或集器皿 或屯几格 或醉醇酎 因之投溺 或投熱羹 遂喪其魄)”³⁹⁾들이야 말로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욕심을 앞세운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것이다.

37) 「蠅不畏鞭」.

38) 『詩經』 小雅 青蠅三章, 營營青蠅 止于樊 豈第君子 無信讒言.

39) 박일봉 역, 『고문진보-문편-』, 중판;육문사, 1988에 따름.

V. 지역 애착의 발현

병와는 강화에 있을 때 『강도지』를, 제주목사로 있을 때는 『탐라순력도』와 『탐라록』을, 영천에 있을 때에는 『영양록』과 『영양속록』을 엮기도 했다. 이들 문건들은 모두 그가 정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것이다. 『소성속록』을 엮은 것도 영종도에 대한 애착과 무관하지 않는데 특히 제목이 「五嘉八咏」이고 소표제가 각각 白雲晴嵐, 紫烟霽月, 三玉落照, 八尾歸帆, 迦羅課農, 瞿曇訪釋, 松山放牧, 桐江釣魚인 시가 있는데 이것이 영종도를 소재로 하고 있는 八景詩이다. 오언율시와 오언율시, 오언 절구 등의 형식으로 바꾸어 가며 각각 5회에 걸쳐 실려 있기에 모두 40편이다. ○○○○라는 소표제에서 앞의 ○○은 특정 공간이고 뒤의 ○○은 앞의 공간과 관련된 경관(혹은 행위)이기에, ○○○○은 해당 지역을 대표할 만한 승경 혹은 절경으로 인식된 결과이다. 이른바 예외없이 ‘팔경시’는 해당 지역의 ‘名勝’과 관련돼 있는데 관동팔경, 강릉팔경, 울주팔경, 문경팔경 등이 그것이다.⁴⁰⁾

「오가팔영」에서 다루는 여덟 가지는 아지랑이, 비 개인 날에 뜨는 달, 낙조, 돌아드는 돛단배, 농사일, 석가모니 방문, 목장, 낚시이다.

白雲晴嵐	백운산의 아지랑이
紫烟霽月	자연도의 비 개인 날에 뜨는 달
三玉落照	삼옥의 낙조
八尾歸帆	팔미도로 돌아드는 돛단배
迦羅課農	사찰의 농사일
瞿曇訪釋	구담사의 석가모니 방문
松山放牧	송산의 목장

40) 안장리, 「한국팔경시 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논문, 1997, 참조.

桐江釣魚 동강에서의 낚시

앞의 II, III, IV.를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⁴¹⁾ 白雲晴嵐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하니 까마귀 머리와 같고/나누어졌다 합쳐지고 때론 드러나니 쥐며느리 비너 같(明滅每俄鴉舅幘/分合時露鼠姑簪)’다 하며 아지랑이를 읊고 있고, 紫烟霽月에서는 ‘아침 해가 비추니 눈빛과 분별하기 어렵고/밤에는 맑은 달무리 비추니 어찌 돈으로 살 수 있으랴(連空曙色難分雪/照夜晴暈豈用錢)’며 달을 소재로 하고 있다. 三玉落照에서 ‘하루해는 쉽 없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니/약목(若木)⁴²⁾의 가지 아래로 이미 반쯤 잠겼(日日常趨四分三/若樹低枝已半斂)’다며 삼옥의 낙조를 그리고 있고, 八尾歸帆은 ‘바람맞은 돛단배는 조수를 타고, 띠구름은 돌아오고/…/흰 갈매기는 날면서 산 빛을 가(帆風乘汐帶雲歸/…/白鷗飛割山光劈)’른다며 팔미도로 돌아오는 돛단배의 모습이다. 桐江釣魚는 동강에서의 낚시를 소재로 하는데, ‘바다와 닿아있는 맑은 시내 고기 잡기 알맞으니/…/옥 같은 대나무로 낚싯대 만드니 부러지지 않고/명주실로 그물 짜니 성글지 않구나(際海清川可取魚/…/山携玉筍竿堪折/地接繭絲網不疏)’처럼 실제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다.

知時好雨襲菲葺, 때를 알아 단비 내려 채소와 버섯을 적시니,
 旒幟風情最先農. 패랭이 쓴 모습 모두 선농이구나.
 勤耒不嫌荒畝役, 거친 이랑에서 힘써 밭 갈기를 싫어하지 않으니,
 樊籬寧羨紫泥封. 헤진 도롱이지만 어찌 높은 지위를 부러워하리.
 燒痕漸長芳茅苗, 불탄 자리에는 점차 싹이 자라고,
 灌澤偏饒旱豆穰. 물 대어 땅이 기름지니 가뭄에도 콩이 무성하네.

41) 앞에서 제시했듯이 ‘II. 일상에서의 도의 추구와 열린 사유’ ‘III. 궁핍한 일상의 목격’ ‘IV. 잡다한 일상의 발견’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핀다.

42) 해 뜨는 동쪽 바다에 있다는 상상의 神木으로 그 꽃이 光赤色으로 땅을 비춘다고 한다.

禾黍卽今豐兆驗, 벼와 기장이 지금과 같다면 풍년이 들 것이니,
把鉏餘興趁秋春. 호미 든 손 흥에 겨워 가을에는 절구질하리라.⁴³⁾

「오가팔영」의 다섯 번째 사찰의 농사일이다. ‘가라’라는 곳이 어딘지 적시할 수 없으나 ‘가라’가 釋迦 부친의 宮이 있었던 迦羅衛城일 경우, 사찰 근처의 농사짓는 곳이다. 위의 시에 채소와 벼, 콩, 벼, 기장 등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규모를 갖춘 곳일 것이다. ‘힘써 밭갈기를 싫어하지 않’으면서 ‘어찌 높은 지위를 부러워하리’처럼 노동에 대해 긍정하는 모습과 ‘때를 알아 단비 내’린다는 통해 보건대 사찰 관리 하에 있는 농장으로 추정된다.

吟節先訪老瞿曇, 끄끙거리며 지팡이 짚고 먼저 노스님을 찾아가니,
弊衲何年結此庵. 헤어진 장삼, 이 암자를 지은 것이 어느 해인가.
堆寂逗雲窺色相, 구름이 머무는 고요한 암자에서 색상(色相)을 엿보니,
指空飛錫鎖烟嵐. 허공을 향해 석장(錫杖)을 던졌는지 안개와 남기를 가두었네.
禪心已啓藏龍鉢, 선심(禪心)은 용을 바리메에 가둘 수 있게 이미 열렸고,
大性猶期照佛龕. 큰 깨달음이 불당에 비치기를 기약할 수 있구나.
工倒劫塵堪此腹, 공부가 잘못되어 속세에 유혹됨은 이 몸이 감당하리니,
未生顔目果誰探. 안목도 생기지 않은 그대 과연 누가 찾으려나.⁴⁴⁾

「오가팔영」의 여섯 번째 구담사의 석가모니를 방문하다이다. 백운산 동북쪽 기슭에 위치한 구담사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가 창건했고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수되면서 용궁사로 바뀌었다. 병와가 살던 시기에는 구담사라 불렸으며 영종도를 대표하는 사찰이었다. 영종도의 주산에 위치한 사찰이었기에 ‘구름이 머무는 고요한 암자’라든가 ‘안개와 남기를 가두었다’

43) 「迦羅課農」.

44) 「瞿曇訪釋」.

고 진술하고 있다. 물론 그곳에서는 ‘흰 파도 맑은 바다 보’는 곳이기도 했다.⁴⁵⁾

四圍松鬱半蠓山,	울창한 소나무로 사방을 에워싼 반호산,
柳鱣罵嬌草色斑.	버들은 늘어졌고 피꼬리는 고운데 풀빛이 어지럽구나.
坡犢韻奔牽鞵去,	언덕 위의 송아지는 울면서 고삐 끌고 달아나고,
豢半偷放怯鞭還.	기르던 것 절반은 흠쳐가고, 달아난 것은 채찍으로 돌려보낸다.
川原錯落滄波外,	냇물과 들판은 저 멀리 푸른 파도와 뒤섞였고,
場圃熹微杳靄間.	채마밭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누나.
叩角歌殘江鳥背,	뿃 두드리며 노래 끝나자 물새는 사람을 등지고 나는데,
至今樵牧但衰屨.	지금 나무하고 기르는 사람은 쇠잔하기만 하다오. ⁴⁶⁾

「오가팔영」의 일곱 번째 송산의 목장이다. 송산은 영종진의 남쪽으로 7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산으로 목장과 더불어 소나무 보호구역이었다. 다른 한시에 따르면 송산에 풀어놓은 짐승은 소, 송아지, 흑염소, 양이다. 그곳에는 ‘꼴 베는 목동(菟牧)’⁴⁷⁾이 ‘시냇가에 짐승을 풀어놓으니 절반은 산으로 올라가네’⁴⁸⁾처럼 방목을 하며 ‘뿃 두드리며 노래’부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근의 마을 이름도 송산이었으며 소나무가 제법 많이 있었던 곳이었다.⁴⁹⁾

45) 「오가팔영」 이외에 병와가 「登瞿曇寺」를 다룬 시에는 ‘흰 파도 맑은 바다 보면서/누런 머리에 붉은 승복 걸쳤구나(白波清海眼/黃髮赤僧肩)’라 하고 있다.

46) 「松山放牧」.

47) 「오가팔영」 이외에 병와가 「松山放牧」을 다룬 시에는 ‘목정말과 새밭은 조금의 틈도 없고/꼴 베는 목동은 매일 산에 오르네/다섯 마리 검은 양은 어디 있는지/노래 부르며 다니지만 한가함을 느낄 수 없네(菟畜無片隙/菟牧每從山/五羖今安在/行歌不覺閑)’로 나타난다.

48) 「오가팔영」 이외에 병와가 「松山放牧」을 다룬 시에는 ‘시냇가에 짐승을 풀어놓으니 절반은 산으로 올라가고(臨溪菟牧半登山)’로 나타난다.

49) 「오가팔영」 이외에 병와가 「松山放牧」을 다룬 시에는 ‘마을 이름도 산 이름과 같이 부르고/어느 해에 이 소나무를 심었는가(村以山爲號/何年植此松)’로 나타난다.

영종도의 명승을 읊은 「오가팔영」에서도 병와의 ‘일상에서의 도의 추구와 열린 사유’ ‘궁핍한 일상의 목격’ ‘잡다한 일상의 발견’을 포착할 수 있다. 瞿曇訪釋과 迦羅課農은 열린 사유 및 잡다한 일상의 발견과 관련된 것이고 松山放牧은 궁핍한 일상의 목격에 해당한다. 松山放牧의 경우,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을 때 명승이라 칭할 만하지만 가까이에서 관찰하면 그 배후에 숨어있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다. 울창한 소나무, 들판, 송아리, 노랫소리가 어우러진 송산이란 공간은 태평스러움을 함의하고 있는 명승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공간에서 ‘기르던 것 절반은 훔쳐가고’ ‘나무하고 기르는 사람은 쇠잔’하자는 데에서 궁핍과 관련된 부분을 짐작할 수 있다.⁵⁰⁾

VI. 결론

『소성속록』을 중심으로 병와의 인천 시편을 고찰해보았다. 병와에 대한 연구가 동시대인에 비해 넉넉하지 않은 편이지만, 『소성속록』의 한시를 통해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다. 『소성속록』 안에 존재하는 『부해록』은 병와의 영종도 生活記 성격을 띠기에 당시 영종도 주민의 생활상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물론 그것이 병와에 의해 한시화됐기에 병와를 이해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소성속록』의 한시를 ‘일상에서의 도의 추구와 열린 사유’ ‘궁핍한 일상의 목격’ ‘잡다한 일상의 발견’ ‘지역에착의 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네 가지에 공통으로 관류하는 것은 ‘궁핍’이었다. 이는 「

50) 이런 경향은 「오가팔영」의 두 번째 紫烟霽月(자연도의 비 개인 날에 뜨는 달)에서도 재연되는데, 비 개인 날의 맑은 달빛이 화자의 눈에 직접 포착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갈라진 처마 사이로 달빛이 먼저 들어온다(破屋疏簷得月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금 만들기 위해 땀감을 흘리다(鹽竈偷薪)」에 나타나듯 ‘섬사람들은 모두 먹고 사는 문제로 급하(最是島民生事急)’기에 ‘일상’ 자체가 궁핍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들은 익히 속이고 무고했(「褒邑多飢民」, 吏習欺誣事輒非)’기에 ‘벼슬아치 세금을 독촉하는 기세는 매우 등등(「窮島五苦」, 里尹催租氣甚豪)’하기도 했다. 일상이 궁핍하건 잡다하건 병와는 그것을 도학으로 견인하는 자세를 지녔다. 신발(「仁字靴」), 벌레(「蟻埴」, 「蟋蟀」, 「蠅不畏靴」) 등을 소재로 하되 그것의 특징을 도학으로 견인한 사례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즉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도학으로 연계했던 것이다.

「오가팔영」은 단순히 영종도의 ‘명승’을 한시화한 팔경시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도의 추구하고 열린 사유’ ‘궁핍한 일상의 목격’ ‘잡다한 일상의 발견’이 적용될 수 있었다. 멀리서 보면 명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명승이면에 숨어 있는 궁핍이 자리잡고 있기도 했다.

끝으로 병와의 지역 애착이 발현된 제주의 『탐라록』과 영천의 『영양록』·『영양속록』을 『소성속록』과 대비해 보면, 각 지역에 대한 특징과 한시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論語』, 『詩經』, 『병와전서』

박일봉 역, 『고문진보-문편-』, 중판;육문사, 1988

이연세·김원옥, 『역주 소성속록』,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2007

김용걸, 「병와 이형상의 철학사상」, 『한국사상가의 새로운 발견-병와 이형상·호산 박문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남명진, 「병와 이형상의 경학사상」, 『한국사상가의 새로운 발견-병와 이형상·호산 박문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지교현, 「병와 이형상의 윤리사상」, 『한국사상가의 새로운 발견-병와 이형상·호산 박문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박민철, 「병와 이형상의 저술과 가장 문헌의 서지적 분석」, 경북대석사논문, 2011

안장리, 「한국팔경시 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논문, 1997,

임성민, 「병와 이형상의 악부시 연구」, 성균관대석사논문, 2002

최재남, 「병와 이형상의 삶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9

〈국문초록〉

병와 이형상의 인천 시편 고찰

- 『소성속록』을 중심으로

이영태

이 글의 목적은 『소성속록』에 있는 이형상의 한시를 살피는 데 있다. ‘일상에서의 도의 추구하고 열린 사유’ ‘궁핍한 일상의 목격’ ‘잡다한 일상의 발견’ ‘지역애착의 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에 대한 평가가 道의 ‘실천’ 및 ‘행동’으로 규정됐듯이, 그는 일상의 잡다한 것이건 궁핍한 것이건 상관없이 목격하는 모든 소재 -개미, 귀뚜라미, 파리 등-의 특징을 求道와 연계시켜 이해하려 했다. 특히 궁핍의 상황에서도 顔子의 안빈낙도를 운운하는 한시가 많았다. ‘지역애착의 발현’에서 병와의 「오가팔영」은 단순히 영종도의 ‘명승’을 한시화한 팔경시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도의 추구하고 열린 사유’ ‘궁핍한 일상의 목격’ ‘잡다한 일상의 발견’이 적용될 수 있었다. 遠景에서는 명승이지만 近景에서는 명승 이면에 숨어 있는 궁핍을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 병와의 한시에 공통으로 관류하는 것은 ‘궁핍’이었다.

병와의 지역 애착이 발현된 제주의 『탐라록』과 영천의 『영양록』·『영양속록』을 대비해 보면 『소성속록』에 나타난 ‘궁핍’과 각 지역에 대한 특징 및 한시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소성속록』, 열린 사유, 궁핍, 「오가팔영」, 道

〈ABSTRACT〉

Incheon Chinese poetry of Lee-Hyeongsang(李衡祥)

Lee, Young T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hecking the special feature of Lee-Hyeongsang(李衡祥) Chinese poetry in 『Soseongsongnok(邵城續錄)』. 'Pursuit of a Duty & open reason in Day-to-day' 'witnessed of poor day-to-day' 'discoveryof miscellaneous day-to-day' 'expressionof Community Attachment' could be discovered. His evaluation was practice and behavior of Duty. Regardless of 'miscellaneous day-to-day' & 'poor day-to-day' were related 'pursuit of a Duty'. Was not simply 「Ogaparyeong(五嘉八咏)」, scenic beauty shows.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near and distant landscape scenery. In scenic beauty followed by near landscape, take place. Revealed common Lee-Hyeongsang(李衡祥) poetry to poor, respectively.

Key Word : 『Soseongsongnok(邵城續錄)』, Open reason, Poor,
「Ogaparyeong(五嘉八咏)」